

이 모든 건 이비인후과에서 시작되었다

글 진유이

읽고 추는 책 모임에서 바타유의 [에로티즘]을 읽다가 내가 일 년에 한번 정도 계장에 밥을 손으로 비벼 먹는 연례행사를 한다는 게 기억났다.

얼마 전에 목이 너무 아팠다. 병원에 가기 귀찮아 일단 목을 좀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보여서 입을 최대한 벌리고 아이폰 카메라 부분을 입안에 욱여넣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 안에는 거의 새끼 에일리언이 자라는 듯, 막을 벗겨낸 한라봉처럼 생긴 목구멍 점막이 부어올라 있었다. 한시간 반 대기한 이비인후과에서는 내가 원하던 만큼의 후한 놀람과 함께 - 의사들은 대부분 환자의 말에 시큰둥하다 - 딸기처럼 부었다고 했다. 색과 질감과 양감까지 생생하게, 무려 과일 비유를 들어주다니. 아주 만족스러웠다.

예전에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숙면을 취했다가 중이염에 걸렸다. 그때도 할아버지 의사는 나를 막 겁주면서 - 역시 만족스러웠다 - 침을 삼키지 말라고 했던가 그랬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합법적으로 걸쭉한 가래를 뱉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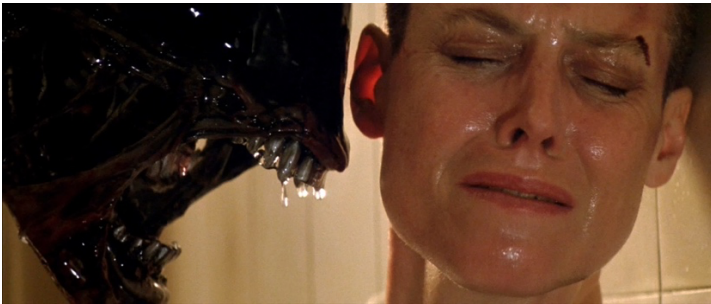
어렸을 때 동네 애들과 함께 둥글게 서서 각자 가래침을 주욱 길게 땅으로 늘어뜨리고 그게 바닥에 닿기 전에 수룩룩 하고 빠르게 빨아올리는 짓을 했던 게 생각났다. 침의 무게, 침 줄기의 탄성과 거리까지 잘 조절해야 하는 스릴있는 놀이였다. 다시 입으로 들어온 가래침은 그 잠깐 사이에 입안의 온도보다 차가워져 있었다.



영화 속 키스에서 그것을 리얼하다고 믿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는 역시 두 사람의 입이 떨어질 때 죽 늘어지는 침일 것이다. 그 분야 제일 유명한 장면은 아마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Cruel Intentions)의 사라 미셸 겔러와 셀마 블레어의 키스일 것이다. 입술 안쪽과 혀, 그러니까 뽀송한 부분 말고 미끌하고 끈적한 점막들이 쉬지 않고 왔다갔다 하는 것과 마침내 입이 떨어지며 보이는 침의 가닥이 군더더기 없이 잘 보이도록 촬영됐다. 집어넣은 내 혀를 네 혀로 마사지하라는 “first base”의 팁을 전수하는 이 장면은 많이 패러디되기도 했다.



점액질 전체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은 아마 에일리언 시리즈 안에 뭉땅 들어있을 것이다. 나는 에일리언 시리즈가 성공한 이유도 그 점액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외계 생물이 인간의 몸에 무언가를 주입하고, 그것이 인간의 몸에서 자라 아무런 허락도 없이 피부를 뜯어 스스로 태어나는 장면에서의 리얼함도 그것을 둘러싸 주욱 늘어지는, 피와 태반(?) 사이 점액질에서 나온다. 포유류라면 점액질에 싸여 태어나야 하듯 그 미끈한 액체가 이것이 인간의 몸에서 나왔다는 기괴함을 강조한다.



질겁한 시고니 위버의 얼굴에 밀착한 괴물은 한가득 머금은 점액질을 뚝뚝 떨어뜨린다. 끝내 접촉은 안 하지만 영롱하게 반사되며 떨어지는 액체가 긴장감을 극대화시킨다. 끔찍한 공포를 느끼는 시고니 위버의 얼굴도 땀에 젖어 있다. 리들리 스콧이 이 영화를 청불 등급이 아닌, PG-13 등급을 받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가 건드리는 (인류가 가진 외계생물로부터의) 강간 공포가 풍부하고 미끄덩한 점액질로 표현된 것도 그 고민의 결과였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제일 갖고 싶었던 스크린 속 얼굴은 인터스텔라 속 매튜 매커너히였다. (인터스텔라가 아주 우스운 영화라는 생각과 별개로...) 그는 시종일관 땀에 젖은 얼굴로 나온다. 그가 sexy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의 얼굴은 자체로 dick 같다고 하더라) 땀에 젖은 얼굴은 인물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한다. 그 “애쓰고 있음”이 얼굴의 질감에 잘 드러난다는 뜻이다. (왜 이렇게 변명하지?)

십 년쯤 전에 MBC에서 방영한 한 병원 드라마가 떠오른다. 주연 여배우의 얼굴이 유독 빛났다. 아마 그 때 “물광”피부가 트렌드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 조명과 색보정 탓일 수도 있다. 내가 보조로 일하던 편집기사님은 그 뽀얀 얼굴을 싫어하셨다. “그 물광피부지 뭐지 파우더로 좀 덮으라 그래” 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끈적매끈한 얼굴이 응급실 인턴 의사들의 긴장과 (때론 어딘가에 매달려야 하는) 간절함 같은 걸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인턴이 극중 멘토인 교수에게 혼나는 장면이 있었다. 눈물을 막 흘리는, 소위 말하는 “오열씬”이었는데- 배우의 얼굴에서 일본 소년만화 연출처럼 눈물 콧물이 사정없이 줄줄 흘렀다. 나는 그 장면에서 분명 숙연해졌으면서도... (극에 이입한 걸까? 아니면 저런 모습이

될 정도로 힘들어하는 배우에게 연민이 든 걸까?) 저 눈물, 아니 콧물 썬 다시 짖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내 일도 아닌데) 걱정이 들었다. 왜 나는 남의 점액질마저도 부끄러웠던 것일까?



점액질은 내밀하고 그래서 대부분 야하다. 몸에서 분비되는 액체 중 눈물, 땀은 침, 오줌, 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체액은 점성을 갖고 있다. (생리혈은 이미 굴로 통한다) 그리고 체액은 점성이 있을수록 왠지 더 내밀하고 더 부끄럽다.

물론 점액질을 마구 활용하는 분야도 있다.

- 점액질을 먹이는 가학 포르노
- 점액질을 뽑아내는 가학 포르노

점액질 청소의 대가들도 있다.

- 점액질을 모조리 뿜아내고야 말겠다는 기세의 아빠들의 아침 세수
-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에어 코풀기를 통해 점액질을 없애는 축구 선수들
- 길에서 카악 소리와 함께 점액질을 내뿜는 아저씨들

그리고 나의 잠재된, 가장 두려운 공포 중 하나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점액질 대발사를? 하게 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다. 그 근원은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의 점액질을 보면서 놀린다. 나는 그래서 나의 점액질을 강박적으로 부끄러워하고, 남의 점액질 또한 대신 부끄러워해주고 있다. 하지만 남의 점액질이 목격되었을 때 그것이 부끄러워할 만큼 혐오스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점액질을 보면 동질감이 든다.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오랜만에 요가원에 갔다. 선생님이 몸을 데우는 요가호흡을 알려줬고, 그것은 입을 사용하지 않고 코로만 들이마신 후 짧고 강하게, 마치 총쏘듯 흥! 하고 내뿜는 것이었다. “점액질 노출 공포”가 있는 내가 반사적으로 한 생각은 그거였다. “분명 콧물이 방해한다.” 다행히 그 날은 콧속이 아주 뽕송한 날이었다. 나는 흥!을 몇십 번을 해도 콧물이 나오지 않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에 차 있었다. 선생님이 시작하라고 하자 아니나다를까 몇 분이 축축한 “흥!” 소리를 냈고, 나는 그 사람들의 뒤통까지 당혹스러운 중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역시 대가였다. 침착하게 말해 주었다. “당연히 콧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땐 수건이 있습니다.” 라고, 역시 마음이 편해졌다. 앞으로는 점액질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